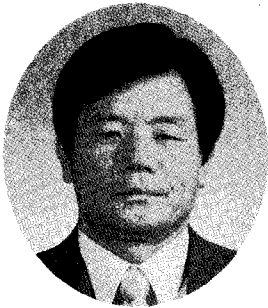


우리 스스로 우유 홍보하여 낙농터전을 보호하자



하 청

부산우유 자조금 추진위원

낙농인의 한 사람으로서 낙농 자조금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 되겠다」는 예감을 받았다. 가뜩이나 먹구름이 끼져 있는 이 나라 낙농업에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낙농인, 유업체,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 사업일 것이다.

이제는 나 혼자만 잘 되는 사고가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여 서로가 잘 되도록 투자하는 삶만이 튼튼한 성공을 약속할 수 있는 시대이다. 자조금 제도가 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우리 낙농은 '95년 하반기 이후 계속 하향곡선만 그으며, 현재 분유재고 1만 5천톤을 넘겼고, '97년 대비 60~70% 사료가격 인상, 유제품 소비 감소, 젖소 가격 하락, 일부 유업체 원유대금 체불, WTO 협정에 따른 정부 보조금 감소, 전 근대적인 유통 구조, 유제품 수입 개방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상태로 간다면 학계의 예측대로 낙농가 1만 7천호 중에

서 8,9천호도 채 안남고, 유가공업체도 줄어 5~6개 업체만 남아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낙농인은 낙농인대로, 정책 수립자나 집행자는 그들 나름대로, 유가공 업자는 그들대로 마냥 시류 탓으로 돌리기에 너무 어리석고 무책임하다 할 수 있다. 다행히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분담하고자 자조금 제도를 고안하였으니 우리 낙농인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우리 낙농업이 크게 발전 될 것이며 낙농인의 터전이 보호될 것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1/3을 보조하기로 했으며, 유가공협회에서도 1/3를 조성하기로 했다. 나머지 1/3만을 우리 낙농인들이 분담하면 된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I.M.F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식품이 우유임을 알고, 앞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유는 필수 식품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건강음료로써도 적극 홍보되어져야 하며 전 국민의 실제적인 인식

“

이제는 옛날 새마을운동 같은 정부가 선두에서는 시기는 지났고, 농업인 스스로 권리를 찾고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할 때 정부는 이를 환영하고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낙농인들은 다시 시작하는데 훈련되어 있다. 폭설로 인해 내려앉은 축사를 새로 일으켰고, 폭우로 유실된 조사료포를 다시 일구었고, 소가 난산으로 죽으면 다시 송아지를 키워왔다.

”

이 필요하다. 이에 낙농 자조금이 잘 활용된다면 우유 소비는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에도 낙농인의 기업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여겨진다. 외국의 축산은 벌써부터 자조금 제도를 실시하여 낙농을 보호하고 있으며 국내의 양돈과 양계도 자조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다.

어느 설문 조사에 의하면 낙농인 중 84%가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사실 지금이 우리 낙농가의 고비임이 틀림없다. 사료 값도 못내어 이자의 이자를 물고 있으며, 거기에다 유대의 일부를 분유로 받기도 하고, 송아지 값은 개 값만도 못하며, 어떤 낙농가는 아예 유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안다.

어쩌면 우리는 선택의 귀로에서 있는 것이다. 자조금 조성을 포기하여 정부 시책대로 원유가를 5% 인하하여 단기적으로 우유 소비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자조금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우유 홍보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낙농 터전을 보호 발전시킬 것인지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다.

감사한 기회에 일일 농림부 장관으로 짧은 하루나마 나라 농업 살림을 접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는 옛날 새마을운동 같은 정부가 선두에서는 시기는 지났고, 농업인 스

스로 권리를 찾고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할 때 정부는 이를 환영하고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낙농인들은 다시 시작하는데 훈련되어 있다. 폭설로 인해 내려앉은 축사를 새로 일으켰고, 폭우로 유실된 조사료포를 다시 일구었고, 소가 난산으로 죽으면 다시

송아지를 키워왔다.

꿈에 그리던 선진국의 발판은 제일 힘든 이 시점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역사가 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는 낙농 일세대가 되자. ☺

심각한 낙농현안과 낙농자조금



우충식

해태유업 자조금 추진위원

세상은 이렇게 변할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국민소득 일만불시대를 요란하게 강조하며 OECD가입을 개선장군의 기세로 자랑하던 때가 바로 엇그제 같은데 불과 수개월만에 숨소리마저 맘대로 내기가 두려운 살인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IMF체제로 전락되었다.

이러한 위기적 현실은 그동안 국민건강과 체력증진에 일조를 담당했던 우리 낙농인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미 타업종에 비하여 더욱 심한 충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지나버린 좋은 날의 추억만 더듬거리며 현실을 한탄해서는 안된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난국을 정면으로 맞아 싸워야하며 기필코 승리를 연출해 내야 한다.

그것만이 낙농산업의 전면적인 파멸을 막을 수 있는 길이며 또한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는 식량전쟁에서 나라를 구하는 애국 충정의 길이다. 그런 관점에서 낙농자조금 제도의 시행은 참으로 획기적이고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에 본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맘으로 몇가지 사견을 올리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건전하고 단단하게

“

모든일은 말과 계획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다.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천이 없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낙농인의 문제는 낙농인에 의하여 낙농인의 힘으로서만 해결될수 있다는 신념으로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함으로써 자조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와야 한다.

”

문쳐야 한다.

현재 일부 유업체에서 수개월분의 유대를 체불하는 등 낙농인의 도산을 부채질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과거에 집유선 동결조치 등으로 일부 낙농가에게 불합리한 손해를 강요한 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대책입안을 기피하고 있다.

더욱이 민간인 간의 민사적 문제로 치부하여 결과적으로 유업체의 옳지 못한 부채를 IMF의 파동으로 피명던 영세낙농농가에게 깊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의도를 정녕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부의 의도는 합리적이